

중국어 학습에서의 ‘着’ 오류 분포 분석*

왕베이베이** · 정소영***

목 차

1. 서론
2. 선행연구
3. 오류분포분석
 - 3.1 着을 사용한 오류
 - 3.2 着을 사용하지 않은 오류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HSK动态语料库를 바탕으로, ‘着’를 사용하여 오류를 범한 경우와 ‘着’를 사용하지 않아 오류를 범한 경우를 중심으로 각각의 오류 양상을 살펴보았다. 동사의 성질과 문형의 제약, 두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동사분류는 郭锐(1993, 1997)의 기준을 따랐다. 분석 결과, ‘着’를 사용하여 오류를 범한 경우는 주로 자체적으로 ‘着’를 수반할 수 없는 정태동사와 종결성을 가진 변화동사에서 나타났다. 문형에서의 오류는 동사가 전달동사로 사용된 문장, 감탄문, 장소 전치사구가 포함된 문장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반면, ‘着’를 사용하지 않은 오류는 주로 Vc1과 Vc2 상태동사에서 나타났다. Vc1 동사는 郭锐(1993, 1997)의 기준과 달리 상황에 따라 ‘着’와 결합이 가능한 동사이다. 이 유형의 오류는 ‘着’를 사용하여 오류를 범한 경우와 달리 동태동사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문형에 따른 오류는 주로 연동문 및 경계성과 관련된 구조에서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동사 유형과 문형의 제약을 중심으로 학습자들의 오류분포분석

* 이 논문은 2023년도 광운대학교 연구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강사(제1저자)

*** 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교신저자)

에 중점을 두었다.

키워드: ‘着’, 오류 분석, 동사 유형, 상태동사, 동태동사, 경계성

1. 서론

‘着’는 『國際中文教育中文水平等級標準(2021)』에 따르면 初等 2級에 속한 기본 어휘이다.¹⁾ 『國際中文教育中文水平等級標準』의 설명에 의하면, ‘着’는 동사 뒤에 쓰여 상태와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며, 순간동사·‘了’와 같이 쓰일 수 없으며, 부정형식은 ‘沒’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着’가 초등 2급에 속한 어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 학생들은 ‘着’의 사용을 어려워한다. ‘Prator's hierarchy of difficulty’의 5단계인 split(L1에서 한 요소로 존재하던 것이 L2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요소로 존재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대중국어에서 ‘着’가 다양한 의미로 쓰일지라도 하나의 어휘인 ‘着’로 표현되는 반면, 한국어로 번역시 모두 다른 연결어미 혹은 종결어미, 보조용언으로 번역된다. ‘着’는 한국어에서 아래의 6가지로 번역이 된다.

- 1) 門開着。(문이 열려 있다.)
- 2) 他穿着白色的衣服。(그는 흰 옷을 입고 있다.)
- 3) 看着手机走路很危險。(핸드폰을 보면서 걷는 것은 위험하다.)
- 4) 梨可不能分着吃。(배는 절대 (반으로) 나누어서 먹으면 안된다.)
- 5) 我騎着自行車去學校。(나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간다.)
- 6) 站着!(서 / 서세요!)

1), 2)는 지속상 혹은 결과상²⁾, 3)과 5)는 연동문, 4)는 결과상, 6)은 명령문

1) 중국 교육부는 2021년 『國際中文教育中文水平等級標準(이하 等級標準)』를 공포하고 중국어 어휘와 구문을 초등(1~3급), 중등(4~6급), 고등(7~9급)으로 제시하였다.

이다.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1)은 ‘~아/어 있’, 2)는 ‘~고 있’, 3)은 ‘~(으)면 서’, 4)는 ‘~아/어서’, 5)는 ‘~고’, 6)은 명령문 종결어미가 사용된다.

위의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는 한국어 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루고 있다.³⁾

<표 1> 한국어 문법에서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의 의미범주

연결어미, 종결어미, 보조용언	의미범주
~(으)면서(예문 3)	동시
시간 순서(예문 4)	~고, ~아(어)서
방법, 수단(예문 5)	~고, ~아(어)서
명령(예문 6)	~(으)세요, ~아/어라, ~오, ~게, ~아(어), ~(으)십시오.

즉, 하나의 ‘着’가 한국어로 번역될 때, 6개의 각기 다른 문법형태로 표현된다는 것은 수업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굳이 한국어와의 대응에서 어려움을 논의하지 않더라도, ‘着’의 습득이 어려운 이유는 『現代漢語八百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着’ 한 글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着】·zhe

[助] 表示動態的助詞，緊接動詞、形容詞之後。動詞、形容詞和‘着’的中間不能加入任何成分。

- 1) 表示動作正在進行。
- 2) 表示狀態的持續。
- 3) 用於存在句，表示以某種姿態存在。這裏的‘動+着’可以表示動作在進行中，但更多的是表示動作產生的狀態。
 - a. 名(處所)+動+着+名(施事)。
 - b. 名(處所)+動+着+名(受事)。
- 4) 動1+着+動2。構成連動式。動1多為單音節動作動詞，有時是一個動詞

2) ‘着’는 일반적으로 지속상표지로 알려져 있지만, 陳前瑞(2008)는 결과상으로 보았고, 이에 관해서는 후속논문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3) 국립국어원(2005), p110

重疊或兩個動詞連用。動1與動2的意義關係有各種。

- a. 表示兩個動作同時進行，其中有的可以理解為動1表示動2的方式。
- b. 動1和動2之間有一種手段和目的的關係。
- c. 動1正在進行中出現動2的動作。
- 5) 形+ 着+ 數量
- 6) 動/形+ 着+ 点儿。用於命令、提醒等。

『現代漢語八百詞』에서 분류한 것처럼, ‘着’는 6가지 이상의 문법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느니 만큼, ‘着’에 대한 연구는 셀 수 없고 그에 관한 논쟁도 많지만, 본고는 학생들의 오류 분포의 각도에서만 ‘着’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고는 ‘着’에 관한 오류 분포를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선행연구

본고는 교육의 각도에서 ‘着’를 분석할 것이다. 교육의 범주에는 실험, 대조, 교육법, 교안 등 여러 방식이 있지만, 본고는 오류 분포에 집중할 것이다. 학생들의 오류를 분석하다 보면, 오히려 ‘着’의 기본 원리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선행 연구를 소개함에 있어서 중국어 교육에서의 ‘着’에 관한 연구로 제한하기로 하고, 본문에서 분석을 진행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연구들이나 이론들을 참고하기로 한다.

우선 이 연구에 있어서 李蕊·周小兵의 연구 성과를 간과할 수 없는데, 李蕊·周小兵(2002)은 학습자가 정태적인 ‘着’보다 동태성의 ‘着’를 습득하는데 훨씬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하였고, 周小兵(2007) 중국어와 베트남어의 비교 분석을 통해 베트남 학생들이 ‘着’를 학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베트남어에는 ‘着’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서, 베트남 학생들은 ‘着’의 동태적 의미와 정태적 의미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李蕊(2004)은 일본, 한국, 인도 유학생들의 ‘着’에 관한 오류를 분석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초급학생들의 경우 회피현상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또한 유학생의 경우 ‘着’를 동태에서 사용하지 않고 정태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보았다.

李蕊, 周小兵(2005)은 중급 및 고급 수준 학습자들의 ‘着’ 사용에 대한 관찰을 진행한 결과 학습자의 학습이 U자형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처음 배우고 습득한 후에는 오히려 퇴보의 단계가 나타나지만 1년 반 이후에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V着+ 목적어’와 ‘V₁着 V₂’ 문형을 가장 빠르고 잘 습득했으며, ‘着’의 동태적인 의미를 정태적인 의미에 비해 습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v着’ 문형을 11 종류로 구분하고, 학생들의 작문을 분석하여 학습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문형 7,8,9의 경우 유학생의 사용비율이 현저하게 낮았고, 문형5에서의 사용비율이 높았다고 분석하였는데, 그 이유는 교재에서 문형5의 노출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문형 7은 초급에서는 보이지 않고, 중급 단계에서야 나타났으며, 문형 8은 사용 빈도가 낮고 학습 난이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표 2> 李蕊, 周小兵(2005)의 ‘v着’ 문형구분

구분	예문(출처: 『花』)	
1) v着	a	電視開着, 是香港翡翠台。(靜態)
	b	“莫名我就喜歡你…你知道我在等你嗎?”余發哼着。(動態)
2) 부사(어)v着	a	當他們經過教室時, 發現里面的燈還開着。(정태)
	b	他們像一群剛放出來的鴿子 嘰嘰咕咕鬧騰着。(동태)
3) 부사(어)+ V着+賓	a	柳清戴着金項鍊, 沒人發覺 (정태)
	b	心里還在尋思着如何炫耀她吃的那餐飯和金筆。(동태)
4) 부사(어)+ V1着+賓+ 부사(어)V2+賓	a	欣然拿着兩張卡跑到六樓。(정태)
	b	結果弄得滿手細刺哭着跑回家。(동태)
5) 장소+ V着+賓 (존현문)	a	門背后貼着雷震子的畫像。(정태)
	b	公園的草地上跑着几个快樂的孩子。(동태)
6) 주어+ V1着+賓,	我們正吃着飯, 他進來了。	

주어2+ V2 (+ 賓)	
7) V1着V1着V2	同學們說着說着都變成愿意去了。
8) (부사어)+ V1着+(賓), (부사어)+ V2着+(賓)…… + V n 着(+賓)	瞪着大大圓圓的眼睛苦惱地看着人們。
9) V着(吧)	你給我听着!
10) V着呢	貨我給你們留着呢。
11) 주어+장소부사+ V着	a 雷震子的畫像在門背后貼着。(정태)
	b 几个快樂的孩子在公園的草地上跑着。(동태)

李蕊, 周小兵 (2005)이 분석한 동태적 의미의 습득이 정태적의미보다 느리다는 것은 한족 아동의 제1언어 습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饒宏泉 (2005)의 사례 연구에서 한족 아동이 ‘着’를 수반한 동사는 기본적으로 정적이고 지속적인 의미를 가진 동사이며, ‘(S)V着O’를 가장 먼저 습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孫德金(1999)에서는 北京語言大學 코퍼스를 사용하여 모어가 영어인 유학생들의 ‘了, 着, 過’ 사용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초급단계에서 가장 오류가 많은 것은 ‘過’였고, 그 다음이 ‘着’라고 하였다.

劉瑜(2010)은 中山대학의 中介語 코퍼스에서 모국어가 한국어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쓰기 자료에서 ‘着’가 포함된 653개의 문장을 추출하고, 결과보여로 쓰인 경우와 어휘화로 인해 단어로 굳어진 경우는 제외한 후 분석하였다. 또한 1984년생인 한국남학생을 택하여 ‘着’ 습득에 관한 상세분석을 진행하였는데, 1) ‘V着’의 사용빈도가 현저히 낮았고, 2) 연동문형인 ‘V₁着V₂’에서의 ‘着’를 부사어조사인 ‘地’로 사용한 오류가 보였으며, 3) ‘V₁着 V₁着V₂’문형은 더욱 습득이 어려웠으며 4) 목적어를 수반한 ‘V着’는 목적어를 수반하지 않은 문형보다 습득이 빨랐다.

章桐(2021)은 한국 학생들의 동태조사 ‘着’를 활용한 작문자료를 분석하였는데, 고급 수준의 학생의 경우 7개의 작문이 있었는데 오류가 없었고, 중급 수준 학습자의 코퍼스는 142개였는데 오류 비율은 14.1%, 초급 수준 학습자

의 코퍼스는 604개 중 오류 비율이 14.2%라고 분석하였다.

呂圓(2012)은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 유학생들이 사용하는 동태적 의미의 ‘着’에 관한 학습 상황을 조사하였는데, ‘着’와 ‘了’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학습 시간이 길다고 해서 학습 효과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심지어 고급수준의 유학생들도 오류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모국어의 개입에서 온 것으로 보았다.

卞知美(2012)는 ‘着’와 한국어의 대응상황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하고, 각각의 상황에서의 오류와 비율을 제시하였다. 가장 오류가 높은 유형은 F유형으로 33%였고, 그다음이 E(28%), A(26.5%), B(14%), D(8.3%)의 순서였고, C와 G 유형은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着’와 한국어의 대응상황 (卞知美, 2012)

	용법	A~G 문형	대응상황
着	A	(正,在,正在)+V+着(O) + (呢)	-있다
	B	V/A+着(O) + (呢)	
	C	N(處所)+V+着+N(施事)	
	D	N(處所)+V+着+N(受事)	
	E	V1着+(O) +V2	-서, -며, -채
	F	V1着+VP2	-게
	G	V1着V1着, VP2	-하다보니
기타		adj+着	-다
		V+着(‘과거지속’을 표현함)	-있/-었다

교육에 관한 ‘着’의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기존 연구들은 주로 문형위주의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문형별로 유학생들이 주로 틀리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문형을 소개하였는데, 본고는 가장 간단하지만 중점적인 2가지 오류를 분석하려 한다. 첫째는 ‘着’를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용한 경우이다. 본고가 이 두 가지 오류에 집중하는 원인은 이 유형의 오류분석이 오류의 유형과 원인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HSK動態語料庫를 이용하였는데, 학생들 작문에서 ‘着’는 총 3767회 출현하였고, 그중 이 2가지

와 관련된 오류는 406회였다.

3. 오류 분포 분석

본고는 HSK動態語料庫에서 ‘着’에 관한 오류를 분석하였는데, 코퍼스에 소개된 ‘着’에 관한 오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C]라고 표시되어 있는 오류는 글자가 틀린 것을 의미하고, [L]은 글자가 빠진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后悔[L]라고 했을 때는 원문 중에 悔자가 누락된 것을 의미한다. [D]는 필요 없는 글자가 들어간 것을 의미하고, [F]는 번체자로 쓴 오류, [Y]는 이체자를 쓴 오류를 뜻한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CD]와 [CQ] 이 두 가지의 오류에 집중할 텐데, [CD]는 ‘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용한 경우를 가리키고, [CQ]는 ‘着’를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⁴⁾.

또한 본 연구는 ‘着’를 분석함에 있어서 동사의 성질과 통사의 상황 모두 ‘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동사와 통사의 두 각도에서 분석을 진행하려 한다. 동사 분류는 아래와 같이 郭銳(1993,1997)의 분류를 참조하였다.

<표 4> 郭銳(1993,1997)의 동사분류

정태동사 (stative verbs)				동태동사 (dynamic verbs)					
상태동사 (state verbs)				동작동사 (action verbs)			변화동사 (change verbs)		
Va	Vb	Vc1	Vc2	Vc3	Vc4	Vc5	Vd1	Vd2	Ve
是 等于	知道 認識	喜歡 姓	保持 有	病 坐	工作 敲	吃 燒	消失 增加	離開 實現	來 畢業

4) 대부분의 오류 문장은 여러 오류가 섞여 있다. 예를 들면, “那時我雖然很幸[B辛]福地{CJ+ wy過}生活{CQ着}, 但好像{CJX}生活{CQ中}缺少了一些東西。”와 같다. 본 논문은 [CD]와 [CQ]의 오류에 집중한 연구이므로, 다른 오류는 삭제한 후 제시하였다.

3.1 ‘着’를 사용한 오류

HSK動態語料庫의 학생들 작문에서 ‘着’는 총 3767회 출현하였고, 그중 오류는 406회였다. 그중에서 ‘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용한 오류는 총 127회 였다. 오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귀납할 수 있다.

3.1.1 동사의 성질에 따른 오류

이 유형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오류는 정태 동사에 속한 동사들 뒤에 ‘着’를 붙인 오류이다.

<표 5> 郭銳(1993, 1997)에 따른 정태동사의 분류

无限結構 (Va)	前限結構(Vb)	双限結構(Vc1)	双限結構(Vc2)
→	● →	● → ●	● → ●
*了, *着, *시량목적어 *正在/在, *~過	*着, *正在/在, *~過	*着, *正在/在	*正在/在

郭銳(1993,1997)의 분류에 따르면, 위 표의 4가지 동사 모두 정태동사이고, 정태동사에서 유일하게 ‘着’와 공기할 수 있는 유형은 Vc₂에 속하는 동사들이다. 그러므로 ‘着’를 사용하면 안 되는데 사용한 오류는 Vc₂를 제외한 동사에서 많이 보일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추출한 동사는 ‘認爲, 含有, 抱有, 注重, 了解, 表明, 說明, 需要⁵⁾, 包括⁶⁾’등이고, 실제로 Va, Vb, Vc₁에 속하는 유형의 학생들의 오류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5) BCC 코퍼스에서 ‘需要着’의 용례가 출현하기는 한다. 다만 ‘BCC-문학’의 경우 ‘需要着’가 총 12회에 그치고, 대부분은 번역 작품에 등장해 출현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需要’를 ‘着’이 없는 상태 동사로 분류한다.

6) ‘BCC-문학’에서 47회 출현하지만 대부분이 현대문학작품에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당대 문학에서는 3회에 그치고 있으므로, ‘包括着’도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 (1) 我父親從那個時候就認為{CD着}這是他自己不周到的結果。
- (2) 這篇文章僅僅是3頁的小內容，可是含有{CD着}很多的內容。
- (3) 有的人對此持反對的態度，他們抱有{CD着}一種偏見。
- (4) 首先我認為父母和孩子之間有血緣關係，這表明{CD着}他們在這個世界上有緣分。
- (5) 這個現象說明{CD着}消費者的關心處在這兒。
- (6) 因為人的身體需要{CD着}食物。
- (7) ‘良好的關係’當然也包括{CD着}男女之間的戀愛關係。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상태동사들은 뒤에 진행상 표지나 지속상 표지를 붙일 수 없지만, 한국어에서는 가능하므로 한국 학생들은 이러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1)은 ‘그때부터 계속 생각하였다’는 의미로, (2)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미, (3)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 (4)는 ‘보여주고 있다’의 의미, (5)는 ‘설명하고 있다’, (7)은 ‘포함하고 있다’등으로 번역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즉, 한국어에서는 ‘認為、含有、抱有、注重、了解、表明、說明’에 해당하는 동사들은 ‘~고 있’과 같이 쓰일 수 있는 동사들이므로, 한국학생의 경우 충분히 많이 범할 수 있는 오류이다.

<표 6> 郭銳(1993,1997)에 따른 변화동사의 분류

后限結構(Vd1)	后限結構(Vd2)	点結構(Ve)
→ ●	→ ●	●
	*着	*着, *正在/在
產生, 提高, 消失 등	離開, 滅亡, 實現 등	來, 忘, 看見, 開始 등

郭銳(1993,1997)는 변화동사를 위와 같이 세 가지로 나누었고, 일반적으로 Ve는 순간동사로 분류되어지기도 한다. 또한 Vd₂와 Ve는 동사자체에 모두 Smith(1991)에서 제시한 [+종결(+telic)]의 특징을 갖는데, 이러한 동사들은 주로 변화, 사건의 완성, 새로운 상태 달성 등에 사용되며, 의미적으로는 강한 종결성과 순간성을 지닌다. 이에 속한 동사들은 ‘發生、離開、引起、出現’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戴耀晶(1991)은 ‘着’가 가리키는 ‘지속성’이란 사건과정

(process)의 연속특징을 나타내며, 이때 ‘着’는 문장이 표현하고자 한 사건이 연속적인 과정상에 놓여서 일정 시간이 지속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표지라고 보았다. 굳이 戴耀晶의 견해 뿐 아니더라도 ‘着’를 상태지속이든 결과지속이든 지속을 나타내는 표지로 보는 견해가 학계의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동사 자체에 지속의 의미가 없는 변화동사와 ‘着’의 공기는 논리적으로 쉽지 않다. 아래는 학생들의 오류이다.

- (8) a. 我十七歲的時候離開{CD着}父母，跟哥哥自己做飯吃。
- b. 如果再不採取改善的措施，會造成很多人餓死，引起{CD着}人類的滅亡，這絕對不是危言。
- (9) a. 現在在能偷懶肚子的時代里，出現{CD着}一個問題——綠色食品與飢餓。
- b. 世界上很多國家，特別是非洲的國家每年都發生{CD着}因為飢餓死亡的事情。

이상 4개의 예문 모두 학생들의 오류에서 가지고 왔지만, 자세히 보면 (8)과 (9)는 조금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다. 戴耀晶(1991)은 사건이나 사건의 주체가 복수일 때에는 ‘着’가 순간동사와 결합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본고에서는 학생들의 오류를 분석하면서 순간동사(Ve) 뿐 아니라 종결성 특징을 갖는 변화동사들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10) a. 他眼前交替出現着光明與黑暗。
- b. 在這條美麗的國道上，每天都發生着各式各樣的故事。

위의 예문에서 ‘出現’과 ‘發生’은 모두 Vd₂에 속하는 변화동사로 볼 수 있는데, (10a)의 의미상 주어는 ‘光明與黑暗’, (10b)는 ‘各式各樣的故事’로 모두 복수이다. 즉, 예문 (9)가 비문인 이유는 단수 주어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만약 (9)의 주어를 복수로 수정하면, 문장은 (11)처럼 더 이상 비문이 아니다.

- (11) a. 現在在能偷懶肚子的時代里，出現着各種各樣的問題。

- b. 世界上很多國家，特別是非洲的國家每年都發生着許多因飢餓而死亡的事情。

즉, 동사 성질의 각도에서 학생들의 오류를 보았을 때, 학생들의 오류는 주로 정태동사에 집중되어 있었고, 변화동사의 오류에서는 주어의 성질과 관련이 있었다.

3.1.2 문형에 따른 오류

① 전달동사(引語動詞, reporting verb)로 사용되는 경우

모든 정태동사가 ‘着’를 수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郭銳(1993, 1997)가 ‘着’를 수반할 수 없다고 분류한 동사 중 일부는 제한적으로 ‘着’를 붙일 수 있다. 학생들의 오류에서 보이는 ‘堅持, 反映, 怕, 想’와 같은 정태동사가 목적어를 수반할 때에는 ‘着’를 붙일 수도 있지만, 이런 동사들이 전달동사(引語動詞, reporting verb)로 사용될 때에는 ‘着’를 붙일 수 없다. 徐烈炯(1990:72)은 전달동사들이 수반하는 목적어는 실제로는 주어가 발화하거나 혹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담화내용이 일반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동사에는 ‘感到, 覺得, 斷定, 說, 想, 告訴, 宣稱’ 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동사들 뒤에 오는 절은 주어의 발화나 생각이 기준이 된다.

- (12) a. 他堅持着自己的觀點。
b. 不過，我們爲了自己的進步，要堅持{CD着}靠自己做事情。
- (13) a. 年度熱詞從某種程度上反映着高速發展變化的中國社會。
b. 這是最能反映{CD着}父母是老師這個看法。

(12a)의 ‘堅持’을 예로 들면, 일반 동사로 사용되어 명사구 ‘自己的觀點’을 목적어로 가질 때는 ‘着’를 수반할 수 있지만, 전달동사로 사용되어 (12b)와 같이 ‘靠自己做事情’와 같은 절은 목적어를 가질 때는 ‘着’를 수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13)의 ‘反映’도 마찬가지이다. ‘反映’ 동사가 ‘高速發展變化的中國社會’라는 명사성 목적어를 가질 경우 ‘着’를 수반할 수 있지만, ‘父母是老師這個看法’라는 절을 목적어로 갖는 전달동사로 사용될 경우, ‘着’를 수반할 수 없게 된다.

심리상태동사⁷⁾ ‘怕’와 ‘想’도 마찬가지이다. 심리상태동사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목적어와 ‘着’를 수반할 수 있는 동사들이 전달동사로 쓰이면 ‘着’와 공기할 수 없다.

- (14) a. 那女孩遠遠地躲着, 好像怕着什么。
 b. 我害怕時間越久, 越不能忍到无可忍耐的地步, 同時也怕(CD着)對我的健康產生危害。
- (15) a. 我總是想着這件事。
 b. 我當時想(CD着), 我這一輩子都不抽煙。

예문 (14a)의 ‘怕’와 달리 전달동사로 쓰인 (14b)의 ‘怕’는 ‘着’를 수반할 수 없다. (15)의 a와 b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希望’, ‘祝願’, ‘遺憾’와 같이 심리를 나타내는 상태동사들은 상황에 따라서 ‘着’를 수반할 수 있지만, 이때 일반적으로 명사성 목적어 없이 다른 동사와 배열되는 형태로 나타난다(예16). 하지만 이 심리상태 동사들이 절을 목적어로 갖는 전달동사로 사용될 경우, ‘着’와 공기할 수 없다.(예17)

- (16) a. 她等待着, 她希望着, 她在等待之中自己欺騙自己。
 b. 成千上万的人關注着、惦念着、祝願着。
 c. 這一年, 忙碌着、努力着、調适着、遺憾着。
- (17) a. 現在我希望大家都重視綠色食品, 希望(CD着)不發生由農藥來影響到孩子們

7) 王紅斌(2002)은 심리동사를 상태의 심리동사, 활동의 심리동사, 변화에 속하는 심리동사로 다시 세분하였다. 상태심리 동사의 예는 ‘以爲, 渴望’ 등이 있고, 활동심리 동사의 예는 ‘猜測, 考慮’, 변화 심리동사의 예는 ‘忘, 同意’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CQ]오류 분석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한다.

- 的健康的事情。
- b. 我還祝愿(CD着)世界人們有安寧的生活。
- c. 很遺憾(CD着)我只能寫到這裏, 比較多的話, 我回家以後再說吧!

② 감탄문에서 사용되는 경우

‘渴望, 憧憬, 向往, 崇拜, 怀念, 盼望, 担心, 思念, 想念’과 같은 심리동사들은 ‘着’를 수반할 수 있지만, ‘多么’가 들어가는 감탄문에서는 ‘着’와 공기할 수 없다.

아래의 ‘盼望’⁸⁾과 ‘想念’을 예로 들어보자.

- (18) a. 孩子們盼望着暑假的到來。
b. *老鄒就這麼個兒子, 多么盼望着他順利歸來呵!
- (19) a. 他在異國他鄉, 時刻想念着家鄉的味道
b. *放假兩個月, 孩子們是怎麼想念着老師。

(18a)와 (19a)는 모두 ‘盼望’과 ‘想念’이 평서문에서 쓰여 감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한 반면, (18b)와 (19b)는 감탄문에서 ‘着’와의 공기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아래는 학생들의 감탄문 오류에서 가지고 온 문장들이다.

- (20) 多么盼望(CD着)他撫摸我的臉。
(21) 現在我一個人住在漢城, 我多么孤獨, 多么想念(CD着)父母!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감탄문은 ‘多么……啊’, ‘太……了’, ‘好……啊’, ‘怎麼這麼/那麼……’와 같은 문형을 사용하는데, 아래의 예문에서처럼 심리동사는 ‘多么……啊’ 이외의 감탄문에서도 일반적으로 ‘着’와 공기할 수 없다.

8) ‘多么+心理動詞+着’로 검색했을 때, ‘BCC-문학’ 영역에서만 2회 출현하였다. 심지어 동일 작가의 글에서 나온 것을 보아, 이는 작가의 언어습관으로 보인다.

- (22) a. 太想念父母了!
 b. *太想念着父母了!
- (23) a. 好想念父母!
 b. *好想念着父母!
- (24) a. 怎么这么想念父母!
 b. *怎么这么想念着父母!

감탄문은 직접적으로 사건이나 상황을 묘사하지 않고, 감탄의 형식으로 화자나 주어의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서법(mood)의 형식이다. 이에 반해 상(aspect)은 사건을 바라보는 각도와 사건 내부의 구성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감탄문은 사건 자체보다 화자의 감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문형이므로, 본질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형식인 상표지들과 결합할 때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는 경험상표지 ‘過’에도 해당하지만, 이에 관한 논의는 후속논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③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와 함께 쓰인 경우

郭銳의 Vc₂에 속하는 동사는 진행상표지 ‘在’는 붙일 수 없으나 지속상표지인 ‘着’는 붙일 수 있는 특징이 있고, ‘保持, 有’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동사들은 [CD]오류와 [CQ]오류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보인다. 아마도 동사 자체로는 ‘着’와의 결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이거나 자유롭지 않아서인 듯하다. 실제로 학생들은, ‘有, 活, 生活, 過(시간을 지내는 의미의 過), 說明, 考慮, 研究’ 등 동사와 ‘着’의 공기에 관해 어려워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학생들의 오류를 보자.

- (25) a. 因為我在國外生活{CD着}, 十分了解英語的重要性。
 b. 有兩個人一起在廟里生活{CD 着}。
 c. 因為現在我在上海生活{CD 着}, 在上海那樣的大城市里, 沒有嚴重的飢餓。

예문 (25)는 모두 ‘生活’와 관련된 오류들인데, 한국어와 영어 모두 ‘살다’ 동사는 지속상표지, 그리고 현재까지의 지속을 표현하는 현재완료표지와 공기가 가능하다. 실제로 ‘生活’ 동사 자체는 ‘着’를 수반할 수 있어서 [CQ]오류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26) 我們快樂地生活着。

예문 (26)은 충분히 성립이 되는데, 이는 부사어 구조조사 ‘地’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정소영(2015)에서는 부사어 구조조사 ‘地’가 상태를 묘사할 때 경계성을 나타내주는 성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경계성 성분을 나타내주는 문법 요소들을 ‘목적어, 了, 着, 방향보어, 동시중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연구에서 ‘着’와 관련해 제시한 예문은 아래와 같다.

(27) a. ?他們高興地玩。
b. 他們高興地玩着。

즉, 부사어 구조조사 ‘地’가 상태를 묘사할 경우, 문장의 경계성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일부 상태동사 뒤에 ‘着’를 붙이는데, 이로 인해 예문 (27b)는 성립되는 것이다. 다시 예문 (25)를 보자. 예문 (25)는 모두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와 함께 쓰이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상태동사가 강한 지속성을 표현하고자 할 때 ‘着’와 공기할 수 있지만, 장소를 표시하는 전치사구와 사용될 때는 그 표현이 제한된다. 이에 속하는 동사들로는 ‘生活, 病, 愛, 醉’ 등이 있다.

3.2 ‘着’를 사용하지 않은 오류

HSK動態語料庫의 학생들 작문에서 ‘着’는 총 3767회 출현하였고, 그중 오류는 406회였다. 그중에서 ‘着’를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오류는 총

145회였다. 위에서의와 같이 이 부분도 동사에 관한 오류와 문형에 관한 오류로 구분하였다.

3.2.1 동사의 성질에 따른 오류

① V_{c2}에 속하는 동사들 오류

앞서 제시했듯이, 郭銳(1993)는 정태동사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7〉 郭銳(1993,1997)에 따른 정태동사의 분류

无限結構(Va)	前限結構(Vb)	双限結構(Vc ₁)	双限結構(Vc ₂)
→	● →	● → ●	● → ●
*了,*着, *시량목적어, *正在/在, *~過	*着, *正在/在, *~過	*着, *正在/在	*正在/在
是, 等于, 以為	認識, 知道, 熟悉	相信, 喜歡, 懂, 姓	有, 希望

郭銳(1993, 1997)의 분류 중 Va와 Vb는 ‘着’를 수반할 수 없는데, [CQ] 오류에서는 이 동사들의 오류는 보이지 않았다. 학생들의 오류가 주로 분포하는 정태 동사들은 V_{c1}과 V_{c2}동사들이다. 그 중 ‘着’를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은 오류는 주로 V_{c2} 동사에 해당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V_{c1}에서도 학생들의 오류가 보였다. 郭銳의 기준과 달리, V_{c1} 동사도 ‘着’를 수반할 수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우선, V_{c2} 동사에 관한 오류를 보자. V_{c2}에 속하는 동사는 ‘保持, 有’ 등으로 郭銳의 기준은 ‘着’는 붙일 수 있으나 ‘正在/在’는 붙일 수 없는 동사들이고, 이 부분은 [CD] 오류와 겹치기도 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학생들은, ‘有, 活, 生活, 過(시간을 지내다의 의미), 說明, 考慮, 研究’등 동사에 ‘着’를 붙이지 않은 오류를 범하였는데, 대표적인 동사는 ‘活’, ‘生活’, ‘過’ 이다.

〈活〉

- (28) a. 那時我很難受, 我想如果把機器關掉, 他就會死, 那勉強讓他活{CQ着}有意思嗎?
 b. 她還有活{CQ着}的意義。
 c. 如果現在爸爸還活{CQ着}的話……我要退學、要上班; 哥哥也不能結婚——這不是我們爸爸的希望。
 d. 看病也花錢, 買藥也花錢, 那繼續活{CQ着}也得花很多錢。

‘活’는 대표적인 시작점만 있을 뿐, 종결점이 존재하지 않는 동사이므로 문장이 성립하려면 참조시점을 중심으로 경계성을 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郭銳는 ‘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인지언어학에서의 경계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인지언어학에서 경계성을 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경험이 기준이 되고, ‘活’라는 동사가 참조시점에서 ‘살아 있다’라는 지속의 의미가 필요할 때 보통 ‘着’나 ‘下去’와 같이 쓰인다. 이러한 동사들은 내부균질상태가 아닌 참조시점에서의 지속상태를 만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하고 그 역할을 ‘着’가 해야 하는데, 학생들은 ‘活’가 상태동사임으로 ‘着’가 필요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生活’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 (29) a. 我們現在都很平安地生活{CQ着}, 你們千萬別擔心!
 b. 那時我雖然很幸福地生活{CQ着}, 但好像生活缺少了一些東西。

〈過〉

- (30) a. 從那天起, 三個固執的和尚都過{CQ着}單調的日子。
 b. 目前大部分都過{CQ着}很忙的日子。
 c. 可從大局來說, 地球上的許多人過{CQ着}吃不飽的日子。
 d. 但是在世界上有很多人過{CQ着}飢餓的生活。
 e. 那時候可以說過{CQ着}很懶的生活。

위 예문들에서 ‘過’는 공간을 건너는 것이 아닌, 일정 구간의 시간들을 보

낸다는 의미로 쓰였는데, 학생들의 오류가 많은 이유는 '過'의 목적어가 일반적으로 '過'의 대상을 나타내므로 '着' 없이도 문장이 완성된다고 생각한 듯하다. 실제로 '過'는 '着'를 수반하지 않고 문장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든 '過'동사가 '着'를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0)의 예문들과 (31b)예문의 차이점은 참조시점까지의 지속을 표현하는가의 여부이다. (30a)는 '從那天起'부터 발화시점까지의 지속, (30b), (30c), (30d)는 현재시점까지의 지속, (30e)는 '那時候'의 기준에서 그 시점까지의 지속을 나타낸다. 이 문장들에서의 '着'는 참조시점까지의 지속을 표현함으로써 유경계성을 만들고 있다. 반면 아래 예문 (31b)는 시작점과 종결점이 없는 내부균일구조를 이루는 문장이다.

- (31) a. 她很幸福地過(CQ着)日子。
b. 她很幸福地過日子。

Smith(1997)에 의하면 상태동사의 주요 특징은 정태성[+ static]을 지닌다는 것이고, 郭銳(1997)도 상태동사는 정태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정태성이란 내부적으로 균질(homogeneous)한 시간구조를 갖는 것을 의미하고,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해가는 성질이다. 만약 화자가 명확한 참조시점이 없는 내부균질상태의 문장을 완성하고자 하는 경우, (31b)와 같이 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태동사 중 V_{C_2} 에 속하는 동사의 오류로는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32) a. 到現在, 我們的交往還保持(CQ着), 一直有聯系。
b. 這樣的心思我也保持(CQ着), 每個人都當然抱着這種心思, 可是跟別人一起生活的時候要忍耐, 盡量表現出讓步、犧牲的精神。
c. 桃花到處都開(CQ着), 很漂亮, 可惜的是北京的櫻花很少。
d. 當然母親影響孩子是個十分普遍的現象, 一般我們都從小跟母親有(CQ着)最親密的關係, 因此受到她的影響。

- e. 現在社會上蔓延(CQ着)自利自私的現象, 各人都只顧自己, 不顧他人, 可是這樣的現象只能導致互相不獲利。
- f. 1960年代后韓國的人民的的生活好起來了, 但当父母的心一直想(CQ着困難的時候, 所以對下一輩人的生活方式和想法怎么看怎么不順眼, 不能理解。
- g. 外婆家住漁村, 當時不到一歲的我, 倒是丁点也不戀家, 也不鬧(CQ着)要找爸爸媽媽, 照顧我還一点儿也不難呢!

이상의 오류들로 알 수 있듯이 상태동사라 하더라도 내부균질상태가 아닌 참조시점까지의 지속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는 ‘着’를 사용해야 한다.

② Vc₁에 속하는 동사들 오류

Vc₁에 속하는 동사들은 郭銳에 의하면 구조적으로 ‘着’, ‘正在/在’와 공기할 수 없는 동사들이고, 대부분의 심리동사들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다음의 예를 보자.

- (33) 我一直喜歡着她。
- (34) 我總相信着她的話。

郭銳의 분류에 따르면, 위 동사들은 기본성질로 인해 자체적으로 ‘着’와 공기할 수 없는 동사지만, 위와 같이 상황에 따라서 ‘着’와의 공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고는 王紅斌(2002)에서 분류한 심리동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8> 郭銳(1993, 1997) 과 王紅斌(2002)에 따른 심리동사의 분류

심리상태동사	a	*~着	力圖 發覺 情願1 深感 認為 以為 覺得2 想2 感到 感覺3 覺得1 感覺2 看2 試圖 企圖 妄圖 知道 曉得 懂得 樂意 愿意 熟悉 明白 确信 深信 神往 尊敬 決定 信任 害怕 怕 發愁 討厭 妒忌
	b	?~着	喜歡 尊重 同情 希望 恨
	c	~着	愛 渴望 妄想 堅信 憧憬 向往 崇拜 怀念 關心

		幻想 夢想 挂念 估計 估摸 盼望 懷疑 相信 擔心 思念 想念 想4 反對 遺憾
심리활동동사	~着	猜 猜測 揣測 揣摩 推測 考慮 琢磨 打算 算計2 盤算 尋思 計劃 謀劃 回憶
심리변화동사	*~着	忘 同意 贊成 忘記

위의 표를 보면 심리동사도 내부구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이중 구조적으로 ‘着’와 공기할 수 없는 것은 심리상태동사a와 심리변화동사이고, 심리상태동사b는 상황에 따라 ‘着’와의 공기가 가능하다. 또한 심리상태동사c와 심리활동동사는 상황을 막론하고 ‘着’와의 공기가 가능하다. 이 부분이 郭銳의 동사분류에서 간과된 부분이고, 학생들의 오류가 보이는 것도 이 부분에 많이 집중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동사로는 ‘担心, 相信, 盼望, 埋怨, 關心, 眷戀’ 등이 있는데, 학생들의 오류에 보이는 동사는 주로 다음과 같다.

- (35) a. 因她的父母工作忙很少接触他們的孩子，所以這孩子從小開始就不太了解人心，特別是只想(CQ着)自己，這樣形成的性格的原因在于她的家庭狀況。
- b. 1960年代后韓國人民的生活好起來了，但當父母的心一直想(CQ着)困難的時候，所以對下一輩人的生活方式和想法怎么看怎么不順眼。
- c. 雖然我不能跟你們一起住，可是總想(CQ着)你們的恩惠，要努力生活。

위의 예문에서 ‘想’은 모두 ‘생각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35a)는 ‘특히 자신만 생각한다’는 의미이고, (35b)는 ‘힘들었을 때를 생각한다’는 의미이고 (35c)는 ‘늘 은혜를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생각하다’의 의미로 쓰인 ‘想’은 ‘着’와 같이 쓰여 참조시점에서의 지속의미를 표현한다. 하지만 모든 ‘想’이 ‘着’와 공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想’이 판단하다는 의미로 쓰일 때는 (Vc₁이 아닌) Vb에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 (36) a. 我想今天她不會來。

b. *我想着今天她不會來。

일반적으로 ‘想’이 ‘판단하다’의 의미를 가질 때는 전달동사로 쓰이고, 이때는 [CD] 오류에서 논의한 것처럼 ‘着’와 공기할 수 없다. 동사의 의미가 문형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다. 같은 맥락에서 예문 (37b)처럼 ‘생각해내다’라는 사동의 의미를 가진 ‘想’도 ‘着’ 없이 사용한다.

- (37) a. 你幫我想辦法!
b. *你幫我想着辦法!

또한 [CD] 오류에서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유형에 속하는 동사는 자체적으로는 (38a)처럼 ‘着’와 결합이 가능하지만, 예문 (38b)와 같이 감탄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38) a. 其實我盼望{CQ着}真正的假期的到來。
b. 我却一直盼望着他溫暖的手，多麼盼望{CD着}他撫摸我的臉。

즉, ‘갈망하다’, ‘고대하다’의 의미로 쓰인 ‘盼望’은 ‘着’와 공기할 수 있지만, 감탄문에서는 불가하다. 즉, 동사의 의미 변화로 문형이 달라졌을 경우, 사동의 의미로 쓰인 경우와 감탄문에서는 위 유형에 속한 동사라 하더라도 ‘着’와 공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심리동사가 ‘着’를 수반할 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 (39) 我其實深愛{CQ着}你們，可是一開口就說出不好聽的話。
(40) 他快要上高中三年級了，我在遙遠的地方總惦記{CQ着}他呢，幫我向他問好，好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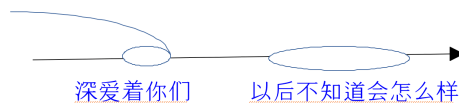
(39)는 참조시점에서 지금까지 쪽 사랑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40) 역시 다른 공간에 있지만 마음으로는 참조시점까지 쪽 그를 생각하고 있음을 표현한

다. 사실 ‘愛’나 ‘惦記’는 ‘着’를 붙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사 자체의 성질이 상태를 표현한다. 위 예문이 앞 뒤 문맥 없는 단문이라면 ‘着’를 붙이지 않았을 때, (39),(40)을 비문이라 단정짓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着’를 수반했을 경우, 과거에서 참조시점까지의 지속을 좀 더 두드러지게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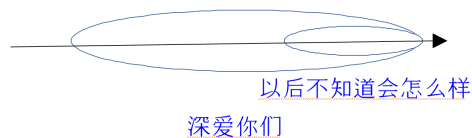
- (41) a. 她其實深愛着你們, 可是以后不知道會怎麼樣。
 b. ?她其實深愛你們, 可是以后不知道會怎麼樣。

(41) a와 b의 차이를 도식화 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41a)



<그림 2> (41b)



일반적으로 현재시제는 발화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발화시를 포함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커다란 영역(그림 2)을 나타낸다. 예문 (41b)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영역에서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뒷 문장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문장은 자연스럽지 않다. 하지만 예문 (41a)는 현재 발화시나 참조시점에서의 지속을 나타내므로 그 점이 조금 넓은 원 모양으로 그려진다 하더라도(그림1), 먼 미래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다의어에 따른 오류 - 看, 想

중국어의 동사 중에는 하나의 동사가 여러 개의 의미항목을 가진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의미항목에 따라서 수반할 수 있는 문법표지가 달라지기도 한다. 즉, 동사의 의미성질에 따라서 동사 분류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동사와 관련되어 본 연구에서 찾은 동사는 주로 ‘看’과 ‘想’으로 대표된다. 아마도 학생들의 작문이어서 다양한 동사들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2) 他們只是看{CQ着}對方的臉誰也不肯開口。

(43) 高中的時候, 我看{CQ着}這樣的父親, 有点儿看不起他。

(44) 不是因為她很忙, 而是因為她受不了看{CQ着}媽媽的病越來越嚴重。

(45) 看{CQ着}他們的樣子我非常感動。

(42)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이고, (43)은 ‘이런 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좀 무시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고, (44)는 ‘엄마의 병이 악화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는 의미이고, (45)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의미로, 실제로 ‘보다’라는 지각동사의 의미항목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하지만 아래 문장은 ‘着’가 없이도 충분히 성립 가능한 ‘看’의 예시들이다.

(46) 我看這樣的父親沒資格做父親。

(47) 看媽媽的病情越來越重, 我們打算請一个更好的醫生。

(46)과 (47)을 보면, ‘着’ 없이도 문장이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看’은 지각동사라기 보다는 판단동사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看’은 ‘판단하다, 고려하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이러한 의미를 가진 ‘看’ 뒤에는 일반적으로 ‘着’가 붙지 않는다.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지속의 시간을 표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想’도 설명이 가능하다. 예문 (35)의 ‘想’이 ‘着’를 필요로

하는 반면 예문(36)은 ‘着’가 필요 없는데, 이때 전달동사로 쓰인 ‘想’은 ‘생각하다’의 의미가 아닌 판단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의미항목을 여러개 가진 동사들은 해당의미에 따라 ‘着’와의 공기여부가 결정된다.

3.2.2 문형에 따른 오류

① 연동문에서의 오류

[CQ]의 문형에서의 오류는 대부분 동작동사에서 많이 보인다. 郭銳(1993, 1997)는 동태동사를 동작동사와 변화동사로 나누고,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9 > 郭銳(1993, 1997)에 따른 동태동사의 분류

동태동사				
동작동사		변화동사		
双限結構 (Vc ₃)	双限結構 (Vc ₄)	后限結構(Vd ₁)	后限結構(Vd ₂)	点結構 (Ve)
● → ●	● → ●	→ ●	→ ●	●
*正在/在		*着, *正在/在	*着	*着, *正在/在
病, 坐, 住	工作, 敲, 等	消失, 增加	离开, 實現	來, 畢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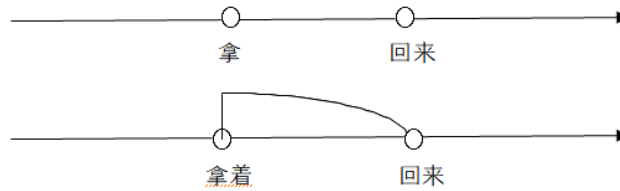
郭銳(1993)의 분류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着’와 공기하지 못하는 동태동사는 변화동사에 속하는 동사들이다. 실제로 학생들의 [CQ] 오류는 주로 동작동사에 집중되어 있고, 본 연구의 분석에 의하면 변화동사에서의 오류는 [CD]에서만 제한적으로 드러났다. 아마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着’가 지속을 나타내고 있고, 변화동사는 지속과 공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동사들과 관련된 문형의 오류는 크게 연동문에서의 오류와 경계성과 관련된 오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연동문에서의 오류를 보자.

(48) a. 我們很高興遞給他錢, 他拿(CQ着)三張票回來了。

b. ? 他拿三張票回來了。

예문 (48a)는 연동문이다. 통상적으로 연동문의 첫 번째 동사는 동작의 시작이나 동작의 독립성을 나타낸다. ‘拿’는 ‘잡는’ 동작의 시작점을 나타내고, 만약 첫 번째 동사가 두 번째 동작까지 지속됨을 표현하려면, 첫 번째 동사가 지속됨을 표시하는 상표지 ‘着’를 사용해야 한다. ‘표를 가진 채로’ 돌아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拿’의 동작이 끝나고 그 결과의 상태가 지속됨을 표현해야 한다. 이때, ‘着’는 결과의 지속을 나타내는데, 이론부분의 논의는 후속논문에서 다룰 것이다. 이러한 오류들이 주로 사용된 동사에는 ‘拿, 開, 抽, 帶, 听’ 등이 있다.

<그림 3> 拿回來와 拿着回來的 시간 도식 차이



윗 그림은 두 시점이 독립되어 있고, 아래 그림은 拿의 동작이 回來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48b)가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무엇인가? 아래의 예문을 보자.

- (49) a. 她拿箱子回來了。
 b. 她拿着箱子回來了。
 c. ? 她拿一个箱子回來了。
 d. 她拿着一个箱子回來了。
 e. ? 她拿很重的箱子回來了。
 f. 她拿着很重的箱子回來了。

‘着’는 참조시점에서의 지속 뿐 아니라, 줌으로 끌어당긴 것처럼 그 시점에서 묘사를 담당한다. 바깥에서의 관망이 아니라, 사건 내부에서 들여다보는 것이다. 그래서 한동완(1991)은 완료상을 관점상, 외망상으로, 미완료상을 내망상으로 지칭하였다.

‘着’가 묘사를 담당한다는 것은 (49c)와 (49e)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나의 상자’ 혹은 ‘무거운 상자’처럼 묘사를 해야 할 때, ‘着’가 없을 경우 부자연스럽다. 즉, 일반적으로 묘사를 담당하는 수식어구가 있을 경우에는 ‘着’를 사용하여 문장이 자연스러워진다(예문 49d, 49f). 즉, 동작동사와 사용된 ‘着’는 참조시점에서의 지속을 나타내며, 이때 묘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오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50) a. 我隨便問一个這里的人爲什么那么多, 原來是新的紅衣主教帶(CQ着)他們的家人、朋友和別人和教皇見面!
- b. 因爲拿(CQ着)烟走路非常危險。
- c. 我朋友的孩子以前在公園玩的時候, 一个年輕人邊走邊抽(CQ着)烟走過來。
- d. 可父親看(CQ着)我們的表情却高興地說, “啊哈哈, 我真是個很幽默的好父親!”
- e. 這時姐姐穿(CQ着)韓國傳統衣服向父親磕頭鞠躬。

② 경계성과 관련된 오류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郭銳의 동사분류에서 无限과 有限은 경계성을 말하는 듯 하다. Va는 동사 내부 성질이 균질인 상태를 의미하고, 前限結構는 상황에 따라서 시작점은 있지만 종결점이 없고, 雙限結構는 상태동사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시작점과 종결점을 가질 수 있는 동사로 규정했다. 郭銳에 따르면 ‘着’와 결합할 수 있는 동사는 상태동사 중에서는 雙限結構(Vc₂)에 국한된다. 하지만 문장에 따라서 충분히 Vc₁도 ‘着’와 공기가 가능한데, 이러한 상황은 모두 경계성과 연관이 있다. 沈家煊(1995)은 시작점과 종결점을 가지고

동태성을 표현하는 동사를 ‘有界(경계성)’로, 시점이 있다하더라도 종점이 없는 동사를 ‘无界(무경계성)’로 보고, 일반적으로 ‘无界’동사들은 정태성을 띠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앞서 분석한 ‘活’, ‘生活’, ‘過’는 시작점이 있다하더라도 세상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임의의 종결점이나 명확한 종결점이 없는 ‘无界’에 속하는 정태성 동사이고, [CQ] 오류에서의 경계성과 관련된 오류는 다음과 같다.

- (51) 我覺得，一个人做事很認真，但是三个人在一起，每个人都等{CQ着}別人做。
 (52) 他們爲了我做許多好吃的菜，一直陪{CQ着}我。
 (53) 我在朋友和父母的帮助下，我今天也走{CQ着}自己的路。

예문 (51)의 ‘等’을 다시보자.

- (54) a. 每个人都等{CQ着}別人做。
 b. ? 每个人都等別人做。
 c. 每个人都等到別人做。

명확한 종결점이 있는 (54c)와 참조시점 기준에서의 지속을 나타내는 (54a)는 문장이 성립됨에 반해, 문장의 경계지점을 알 수 없는 (54b)는 비문이 된다. 아래의 예문도 마찬가지이다.

- (55) 桃花到處都開{CQ着}，很漂亮，可惜的是北京的櫻花很少。

(55)에서 ‘着’가 없다면 ‘꽃이 피다’라는 시작의 의미만을 가진 ‘開’로 인해 문장의 유경계성을 알 수 없다. (51)의 ‘等’과 같이 시작점만 존재하고 종결점이 없는 동사이니만큼 이를 참조시점까지의 지속을 표시해주는 것은 ‘着’의 역할이다. ‘着’는 유경계성을 담당하여 참조시점까지의 지속을 나타냄으로써 문장을 완성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아래의 예문 (56)의 ‘陪’와 (57)의 ‘保

持’ 또한 沈家煊이 말한 내부 균질성을 갖는 동사이고, 이를 경계 지어줄 ‘着’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만약 ‘陪’가 겹어문의 첫 번째 동사로 쓰여서⁹⁾ 경계성을 담당할 필요가 없거나, ‘保持’ 뒤에 특정한 대상이 와서 유경계성을 표현한다면 문장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56) a. 他們爲了我做許多好吃的菜，一直陪(CQ着)我。
 b. 陪我去書店好嗎？
 (57) a. “沒事吧？”到現在，我們的交往還保持(CQ着)，一直有聯系。
 b. 到現在，我們還保持交往。

(56b)의 유경계성은 ‘去’ 동사와 도착장소를 나타낸 명사가 담당하고, (57b)는 참조시점(到現在)에서의 대상(交往)이 유경계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56a), (57a)와 달리 문장이 성립한다.

이는 신체동작 관련 동사들에게도 적용된다.

- (58) a. 他慢慢地躺下去。
 b. 她慢慢地坐下來。
 c. 他安靜地躺着。
 d. 他安靜地坐着。

Quirk 등(1985)에 의하면, 신체동작 동사들은 모두 [+활동]과 [+정태]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즉, 활동동사임에도 상태를 표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세를 표시하는 ‘躺, 坐’와 같은 동사들은 시작점은 순간적이지만 지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着’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이 동사들은 자체에 순간 시작점만 있어서, 문장을 유경계성으로 만들어줄 성분이 필요하고, 이 때문에 위의 예문들과 같이, 방향보어나 ‘着’와 함께 사용된다. 이때 ‘着’는 동

9) ‘陪’ 겹어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이 문장에서 ‘我’는 ‘陪’의 목적어이자 ‘去’의 주어가 되므로, 일반 연동문과는 다르다. 대부분의 겹어문에서는 첫 번째 동사에 상표지를 붙이지 않는다.

작이 끝난 후의 지속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로 인해 陳前瑞(2008)에서는 결과상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후속논문에서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이 오류에 속하는 예문들은 다음과 같다.

- (59) 躺在床上, 休息一下順便打開收音機, 放上磁帶, 播出一首流行歌, 邊躺(CQ着)邊聽, 也覺得很逍遙自在。
 (60) 他下了決心“我將來一定要住在躺(CQ着)的時候不接觸家具的大房子!
 (61) 我和父親在坡上并排坐(CQ着), 終於父親開始說話了。
 (62) 比如, 在你的家里有人吸煙, 在旁邊坐(CQ着)的不抽煙的人受到的危害更嚴重。

학생들은 예문 (59)를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邊~ 邊~’의 구조여서 지속을 나타내는 ‘着’가 필요 없다고 여겼을 수 있고, (60)과 (62)는 본동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在~的時候’이라는 참조점과 수식어구를 나타내므로 ‘着’를 사용하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신체관련 자세동사 ‘躺, 坐’는 본동사로 쓰이지 않고 다른 문장성분에 쓰였다더라도 지속을 표시해주는 ‘着’가 필요하다.

즉, 종결점을 갖지 않는 동사이거나 내부에서의 균질성을 갖는 서술어가 발화시점까지의 지속을 나타내기 위하여 유경계성이 필요할 때에는 ‘着’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존현문에서의 오류와 조동사와 함께 쓰이는 문형에서의 오류가 있지만, 이는 편폭의 제한으로 인해 상적특징과 관련된 이론을 다루는 후속논문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4. 결론

본고는 두가지 방면에서 HSK動態語料庫에서 ‘着’에 대한 학생들의 오류를 분석하였다. 첫 번째는 ‘着’를 사용해서 오류를 범한 경우([CD])이고, 두 번째

는 ‘着’를 사용하지 않은 오류를 범한 경우([CQ])이다. 모두 동사의 성질과 문형의 제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동사분류는 郭銳(1993,1997)의 분류를 기준으로 하였다. 본문에서 분석하고 새로 발견한 사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CD]오류의 경우이다. 동사의 성질에 따른 오류를 보면, [CD]오류는 정태동사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정태동사 중에서도 주로 Va, Vb, Vc₁ 동사에 많이 보였는데, 이 동사들은 공통적으로 자체적으로 ‘着’를 수반할 수 없는 동사들이다. 동태동사를 사용한 오류에서는 변화동사(Vd₂)에서 소수 보였는데, 이는 주어의 단복수와 관련이 있었다. 문형에 따른 오류로는 (1) 전달동사로 사용된 경우, (2) 감탄문에서 사용된 경우, (3)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와 함께 사용된 경우의 오류가 있었다.

다음 [CQ]오류의 경우이다. 동사의 성질에 따른 오류에서 보면, 주로 Vc₁과 Vc₂ 동사에서 나타났고, Va와 Vb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Vc₂동사는 자체적으로 ‘着’를 수반할 수 있는 동사이고, Vc₁동사는 郭銳(1993,1997)의 기준(동사자체적으로 ‘着’수반 불가)과 달리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着’와의 결합이 가능한 동사이다. 정태동사에 집중된 [CD]오류와는 달리 동태동사에서도 많이 보였다. 문형에 따른 오류에서는 주로 동태동사들의 오류가 많이 발견되었는데, (1) 연동문에서의 오류, (2) 경계성과 관련된 오류가 있었다.

서론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본고는 오류의 관점에서 ‘着’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着’의 상적 의미에 대한 논의는 피하였다. ‘着’에 관한 상적 의미와 문형에 관한 논의는 이번 연구를 토대로 후속논문에서 깊이 다룰 것이다.

參考文獻

-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송홍규, 「‘-어 있(다)’ 구문의 상적 특성과 명령문 구성의 제한」, 『우리어문연구』 제63집, 우리어문학회, 2019.
- 이연희, 「한국어교육에서의 결과상대상 교육 방안 연구: ‘-고 있다’, ‘-어 있다’, ‘-었-’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화교육』, 한국어문화교육학회, 18권 제2호, 2025.
- 정소영, 「‘地’와 ‘得’의 사용조건」, 『중국어언어연구』 제61호, 한국중국어언어학회, 2015.
- 한동완, 「국어의 시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卞知美, 「韩国留学生动态助词“着”的习得情况考察」, 复旦大学硕士学位论文, 2012.
- 陈前瑞, 『汉语体貌研究的类型学视野』, 北京: 商务印书馆, 2008.
- 戴耀晶, 「现代汉语表示持续体的“着”的语义分析」, 『语言教学与研究』第2期, 1991.
- 郭 锐, 「汉语动词的过程结构」, 『中国语文』第3期, 1993.
- 郭 锐, 「过程和非过程—汉语谓词性成分的两种外在时间类型」, 『中国语文』第3期, 1997.
- 李 蕊, 「对留学生“着”习得情况的调查分析」, 『云南师范大学学报』第1期, 2004.
- 李蕊·周小兵, 「对外汉语教学助词“着”的选项与排序」, 『世界汉语教学』第1期, 2005.
- 刘英林·马箭飞·赵国成 主编, 『国际中文教育中文水平等级标准(国际标准·应用读本)』, 北京: 北京语言大学出版社, 2021.
- 刘 瑜, 「韩国留学生汉语持续体“V着”的习得考察」, 『语言教学与研究』第4期, 2010.
- 吕 圆, 「印尼、泰国、韩国留学生动态助词“着”习得研究」, 湖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12.

- 吕叔湘, 『现代汉语八百词』, 北京: 商务印书馆, 1980.
- 饶宏泉, 「汉族儿童语言时体习得」, 安徽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05.
- 孙德金, 「外国学生汉语体标记“了”“着”“过”习得情况的考察」, 『第六届国际汉语教学讨论会论文选』, 世界汉语教学学会, 1999.
- 沈家煊, 「“有界”与“无界”」, 『中国语文』第5期, 1995.
- 石毓智, 「论汉语的进行体范畴」, 『汉语学习』 第3期, 2006.
- 王红斌, 「现代汉语心理动词的范围和类别」, 『晋东南师范专科学校学报』第4期, 2002.
- 徐烈炯, 『语法学』, 北京: 语文出版社, 1990.
- 章 桐, 「基于语料库的韩国留学生动态助词“着”偏误分析」, 『汉字文化』第21期, 2021.
- 周小兵, 「越南人学习汉语语法点难度考察」, 『云南师范大学学报(对外汉语教学与研究版)』第1期, 2007.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 Svartvik, J.,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4th ed.), London: Longman, 1985.
- Smith, *The Parameter of Aspect*,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1997.

Abstract

An Analysis of the Error Distribution of 'zhe' in Chinese Language Learning

Wang Beibei · Jhong, So Young

This study examines the patterns of errors in the use of the aspect marker *zhe* by Chinese language learners, based on the HSK Dynamic Composition Corpus. The analysis focuses on two main types of errors: One is when 'zhe' is used when it should not be used, and the other is when 'zhe' is not used when it should be used. The classification of verbs follows the criteria proposed by Guo(1993, 1997). The analysis reveals that errors involving the misuse of *zhe* mainly occur with stative verbs that cannot co-occur with *zhe*, and with change verbs that possess telic feature. Errors were also observed in sentences where the verb functions as a reporting verb, in exclamatory sentences, and in constructions involving locative prepositional phrases. In contrast, omission errors predominantly appear with Vc1 and Vc2 stative verbs. Notably, Vc1 verbs, unlike Guo's original classification, can in certain contexts combine with *zhe*. Furthermore, a considerable number of omission errors also appeared with certain dynamic verbs. In terms of sentence patterns, most errors were found in serial verb constructions and structures related to boundedness. This study analyzes the distribution of errors made by Chinese learner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constraints imposed by verb types and sentence structures.

Key words : 'zhe (着)', error analysis, verb types, stative verbs, dynamic verbs, boundedness

투 고 일 : 2025. 4. 10. / 심 사 일 : 2025. 4. 15.~ 2025. 5. 15. / 게재확정일 : 2025. 5. 20.